

길을 묻는 이에게

제714호 현대불교
2009년 1월 14일(음력 12월 19일) 수요일 / 불기 2553년
법공양 페이지

그냥 무조건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 놓으세요!

오늘은 날이 따뜻해서 같이 한자리 하는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날이 추울 때는 마음이 상당히 안됐었는데요. 그러나 춥든 덥든 구름 지나가듯 하는 것이 한 철 인생살이입니다. 그런데 한 철을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지내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가 큰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소에다 비유를 하고 코끼리에다 비유를 해서 '첫 번째는 입에다 재갈을 물리고, 두 번째는 밥을 굶기고, 세 번째는 몽둥이질을 한다' 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 소고삐를 쥘 양으로 거선을 하다가, 나중에는 소고삐를 쥐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말을 삼가서 하고 말을 걸러서 하고, 항상 남을 섭섭지 않게 하고 남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서, 일체를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안으로 항상 내면의 자불(自佛)을 쥐고서 가는 거와 같은 겁니다. 소고삐라는 건 자기의 그 인연 줄, 즉 말하자면 바로 자기의 근본자리의 줄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이 고삐로도 비유가 되고 그럽니다.

또 '두 번째, 배가 고파도 밥을 주지 않는다.' 이런 뜻은 자기가 자기를, 아무거나 집어 먹지 못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먹는 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가면서 일체를 그저 되나 안 되나, 먹을 건지 안 먹을 건지 모르고 그냥 먹는 사람은 걸리게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밥을 아무거나 먹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굶긴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채찍질을 한다.' 이러는 건 예를 들어서, 내 마음의 길이 잘못 들어지면 사기도 치고 도둑질도 하고 또 남을 아프게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소로 비유를 해서, 옛날에는 소가 남의 밭에 들어가서 짓이겨 놓으면 남에게 여간 해를 주지 않는다 해서 다스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렇게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은 소로 비유한다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를 다스리면서 남한테 해롭지 않게 하고 남한테 아프지 않게 하는 모두가 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보시입니다. 그리고 잘못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이 계가 아니라 잘하라는 것도 계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체가 모든 것을 해 나가는 데는, 그렇게 자기를 자기가 완성시키기 위해서 길을 걷는 데는…, 예를 들어서 과거를 모르면 현실을 보고, 미래를 모르걸랑은 또 바로 현실을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 공부라는 것이 상당히 밀접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안 하고는 안 됩니다. 이것은 내가 그냥 개별적으로, 내 마음으로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인 것입니다.

어떨 때에는 여러분한테 할 말이 아주 많은데 와서 앉으면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공부가 좀 되신 것 같아요. 우리가 둘이 아닌 도리를 여직껏 공부를 하면서 걸어왔죠.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 뜻도 아실 거예요. 옛날 남전 스님이 고양이 죽인 일입니다. 서당 동당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싸움을 하니까 남전 스님이 그것을 딱 쥐고선 "말대답을 해라. 무슨 연고로다가 그렇게 싸우는 건지, 또 무슨 이유로다가 고양이 하나를 놓고 싸우는지. 만약에 너희가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이 고양이를 살리고 대답을 못할 것 같으면 고양이는 죽는다." 이랬더래요. 여러분이 아마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긴 하는데, 그게 왜 그렇게…. 그래 말대답을 못하니까 죽였죠! 죽였는데 나중에 조주 스님이 들어와서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그냥 얼른 신발을 벗어서 머리 위에 이고 팽등같이 달아나가거든요. 무슨 까닭에 신발을 벗어서 한 짝을 머리에다가 이고서 나갔는가 하는 겁니다.

둘이 아닌 도리를 여러 해 동안 공부하신 분들은 그 둘이 아닌 도리만 알면 그것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말로 해서도 아니 되지만 뜻으로 다 알고 말 없이도 대답할 수 있죠. 조주 스님이 왜 짚신 한 짝을 벗어서 머리에다 이고 나갔겠습니까? 힌트는 말입니다, 죽인 남전 스님도 죽인 사이가 없고, 고양이도 죽은 사이가 없고…. 왜 짚신을 벗어서 이고 나갔을까? 지금 이 공부는 자기 자완성입니다. 수없이 말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말로 듣는다면 말로 떨어지고 말아 버립니다. 그 말이 아닌 바로 자기의…, 모두 각자에게 다 들어 있습니다. 자기와 나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내가 말한 것도 둘이 아니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달마 대사는 왜 수염이 없는가?' 하는 도리요. 여기서 마음공부 하신 분들은 대충 헤아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수염이 없다고 왜 그랬을까요? 무슨 까닭에 그랬을까요? 그건 입으로 말을 안 하고도 대답을 할 수 있을 텐데요. 또 입으로 말을 해서 대답을 하면 어폐가 되고 도루묵이 되죠. 이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지만 이 말을 하는 것도 말장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한 학인이 어느 스님한테 물었더랍니다. "어떡하면 깨칠 수 있겠습니까?" 하고요. 그러니까 그 스님 대답이 "본래 귀신 방귀씨는 너한테 심어져 있느니라. 그러니 기르기만 잘 기르면 되지 않겠니?"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기르면 잘 기르겠습니까?" 하니까, "귀신 방귀씨니까 귀신 방귀털을 더 먹이지도 말고 털 먹이지도 말고 그 가운데서 먹이면 되느니라."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못 알아듣는 사람은 허탕을 하고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들어서 이루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체가 없어서 귀신 방귀털이라고 해도 되고 귀신 방귀라고 해도 되죠. 그건 말 붙이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말을 해서 오히려 잘못될까 봐 말씀들을 안 하셔서 그렇지, 말대답 하실 분이 그득한데 어째 말대답이 없습니까? 오히려 그르칠까 봐 안 하시겠죠.

'조주 스님이 짚신 한 짝을 머리 위에 이고 삥 하니 나갔다.' 우리가 항상 공부하는 소리가 거기 깃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는 이치가 거기에 다 있습니다. '소를 타고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 이런 소리 다들 아시죠? 내 이 내면세계에는 수억겁을 거쳐 나오면서 자기를 형성시키고 자기를 진화시킨 장본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쥐려야 쥘 것도 없고 보려야 볼 수도 없고 또는 꿰려야 꿸 수도 없는 거죠. 단지 그거는 자기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상봉이 된다면 이 몸속에 있는 의식들을 다 조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여러분의 몸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아서 그걸 중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비유를 할 때도, 중생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랬다는 얘기 많이 하죠. 선장한테다 맡기지 않고 항상 자기가 '관세음보살' 이름만 들입다 부르고 온통 난리가 나니까 배가 뒤집히더라는 얘기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 몸뚱이 속에는 생명체들이 많은데, 우리 몸은 집과 같고 배와 같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 마음에 의해서 꼭 같이 닮아 주느냐는 얘기죠. 같이 흡수가 되느냐, 같이 공심으로 되느냐 이런 문제예요. 그게 공심이 되지 않는다면 조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현실로 봐서도 이게 딴 데서 들어온 세균이면 싸움이 납니다. 또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나면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선 화합을 제일로 쳤습니다. 화합! 그래서 내 몸뚱이 안에서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면 조복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의식들은 인연의 줄로 인해서,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인연들이거든요. 과거로부터 인연 지은 것을 반연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인연을 지어서 왔는데 본래 근본은 말이 없죠. 여러분이 다 그렇습니다. 본래 근본은 그렇게 작당을 하지도 않고 말이 없고 남한테 억울하게도 안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의식들이 자기가 지은 인연대로 자꾸 말을 하게 하고,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이러거든요. 이 몸속에서 생명의 의식들이 그 마음을 통해서 그렇게 못살게 한단 말입니다. 물론 좋게 이끌어서 말하게 할 수도 있지만 나쁘게도 많이 이끌죠. 반 이상이요. 그러니까 그것을 둘로 보지 않았을 때에 조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이끌어 주는 것은, 뭐 '달마 대사의 수염이 왜 없느냐?' '돌장승이 왜 눈물을 흘리느냐?' 하는 얘기들은 통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대로 자기 불성인 주인공을 믿고 모든 걸 거기다 놓아라 이랬습니다. 그렇게 놓으라고 한 이유는 직결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스님네들이 화두, 화두 하시는데, 여러분이 이

☞26면으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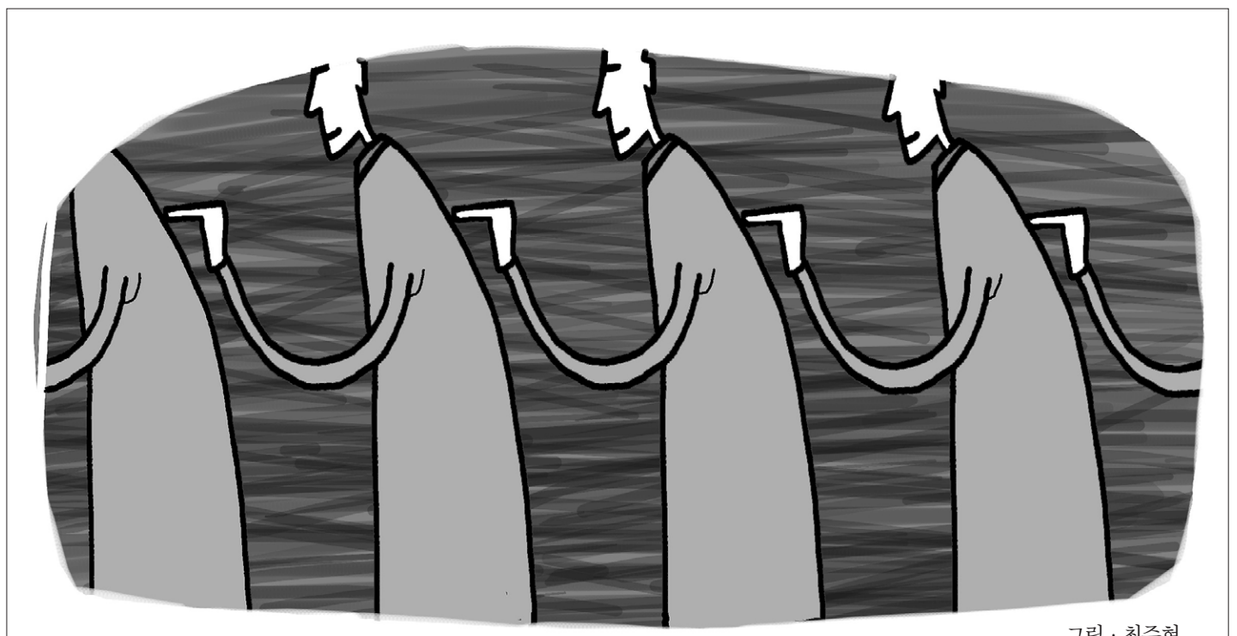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 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천년사랑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나무아미타불 1000일 기도 안내

귀의 삼보하옵고,

『무량수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래세에 모든 경(經)과 도(道)가 소멸되더라도 이 경(經)만을 100년간 사바세계에 머물게 하리라 말씀하시었고, 제경(諸經)에 이르시기를 시방 삼세 불중 아미타불이 제일이라 칭찬하시었고, 『대집경』에 이르시기를 말세중생들은 여러 부처님을 염하면 마음이 산란하여 定(정)에 들기 어려우니 오로지 서방정토 아미타불만을 念(염)하라 하시었다. 따라서 정토법문(淨土法門) 이야말로 오탁악세(五濁惡世)에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 근기에 가장 적합한 수행법이라 할 수 있다.

금번 팔공산 지묘동 **대원사**에서는 1000일간 **아미타불** 기도를 봉행하여 다겁생래로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동참하는 제자 모두가 사바세계의 고통을 영원히 여의고, 서방정토 구품연대에 낳아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무생법인(無生法印)을 증득하여 성불을 이루고자 발원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사부대중은 이러한 수승한 법연의 자리에 수희 동참하시어 큰 공덕인연을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 입　　재 : 불기 2553(2009)년　1월 19일(음 12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 회　　향 : 불기 2555(2011)년 10월 15일(음　9월 19일) 토요일 오전 10시
◈ 계좌번호 : 농협 150090-51-038650 / 예금주 : 대원사
◈ 기도시간 : 하루에 4分(분) 정근합니다.
◈ 문의 및 접수처 : 대원사 종무소 ☎ 053)981-8844 / 주지실 ☎ 053)981-8845

대한불교조계종 제9교구 지묘동 **대원사** 주지 **혜룡** 두손모음